



## “참회합니다” 조계종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개최 19일 1만 사부대중 ‘부처님 법대로 살자’ 결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생에 아픔을 주고 걱정을 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참회합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자 참석자 1만여 사부대중은 합장 반배로 참회의 의지를 다졌다. 10월 19일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된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는 참회와 자정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한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

이 주축이 돼 왜색불교의 폐단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1947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혁신에 나섰던 비장한 ‘봉암사 결사’ 정신을 되살려 최근 어수선해진 종단 분위기를 쇠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단 안팎에서 불어오고 있는 위기의식은 참회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만일,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이해로 귀결시켜 무사안일한다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쓸릴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산선문의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불교계의 폐습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는 결사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우외환을 겪으며 우리 스스로의 수행가풍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옛 조사와 선지식들의 큰 뜻을 기리며 오늘의 불교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결사운동을 조직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이 참회를 위해 일제히 좌선 일정한 시간을 가진데 이어 조계종 종정 범전 스님도 “여기 모인 대중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쁨으로 굳은 것과 굳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시방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시비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라고 법어를 내려 장내를 숙연케 했다.

이날 동참한 사부대중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3대 실천지침을 통해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자 △수행을 생활화, 사회화하자 △우리 국민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선언이 선언으로 그칠 지, 보조 국사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말씀처럼 잘못된 자리에서 자정하고 참회해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 몫은 여전히 불교계에 있다.

한편 봉암사는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희양산(998m)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자리잡은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으로 선승들의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25년간 산문을 폐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봉암사/글=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금주부터 28면으로 증면

새로운 지면 ▶ 복지(5면) ▶ 학술·문화재(6면) ▶ 해외(9면) ▶ 데스크초대석(다음주부터 12면)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